

“당장 먹고 살기 막막”...이른 아침 주민센터 빙 돌아 100m 줄

광주 코로나19 극복 긴급생계비 접수 현장 첫날 가보니



코로나19 긴급생계비에 대한 현장접수가 시작된 6일, 광주 북구 용봉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신청자 대부분 노인·취약계층
일자리 잃고 매일매일 고통
소득 증명하러 통장 보여주기도
광주 어제 하루만 2만여명 접수

“광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가계긴급생계비” 접수 현장은 정부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 주민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광주시 북구가 많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에 대비, 6일 임시로 조성한 양산동 주민센터 내 현장 부스는 오전 8시부터 4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찾았고 접수 시간인 9시를 지나면서 몰려든 신청자들로 주민센터를 빙 둘러 100m에 달하는 줄이 생겼다.

이날 주민센터를 직접 찾은 주민들은 마스크를 쓴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 인터넷 이용이 쉽지 않은 정보 소외계층이 대부분이었다.

코로나19여파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휴직을 한 주민과 저소득 특고고용직 종사자들도 현장을 찾았다가 오는 13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돌아갔다.

서류를 작성중인 신청자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모(69)할아버지는 “간간히 일용직에 나가 생활비를 버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고 일거리도 전혀 없다”며 “먹고 살기가 막막했는데 생계비를 지원해준다는 안내문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박모(76)할아버지는 “버스 운전을 하다 그만두고 유치원버스를 운전해 먹고 살았는데, 지난달 15일 유치원이 문을 닫아 일



6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동 주민센터 앞에 ‘광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가계긴급생계비’ 접수를 하러는 주민들이 100m 가량 줄을 서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을 못하고 있다”면서 “한달 80만원의 월급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한푼도 못 벌여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청소 일을 하는 카페 손님이 끊겨 일자리를 잃었다는 정보(여·57)씨는 “긴급생계비 지원해달라”며 부를 알아 불렀고 아침부터 나왔는데 실직 지원비는 13일 이후 신청 받는다고 해 아쉽지만 나중에 다시 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산동 주민센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40명의 주민이 몰렸지만 사전 준비로 신청하는 데 3분이 걸리지 않도록 해 불편이나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서구 금호1동 주민센터 앞도 상황이 비슷했다. 긴급 생계비를 신청하려는 주민들 20명이 접수 시간인 9시 전부터 줄을 서 있다가 시간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일부 신청자는 소득 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까지 가져와 주민센터 직원에게 꺼내보이기도 했다.

주민 나모(64)씨는 “복수일을 하다 최근 코로나에 일감이 딱 끊겼다. 식당일을 하는 아내도 식당이 문을 닫아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다. 풍암동에서는 사업에 실패해 일자리가 없는 아들과 살고 있다는 82세 할머니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겠다고 주민센터를 찾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했다.

이 할머니는 “아들과 둘이 사는데, 돈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신청자가 몰리면서 현장접수 첫 날인 이날 오후 4시까지 광주시와 5개 구 95개 주민센터에 서류를 낸 신청자

만 1만 6111명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5998명이 넘었고 광산구 3362명, 서구 2790명, 남구 2122명, 동구 1839명 등의 순이었다.

각 주민센터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별로 신청일자를 조정하는 등 신경을 썼다. 북구 건국동과 용봉동에서는 아파트단지별로 찾아가는 현장접수반을 운영했다.

한편, 지난 1~5일 이뤄진 인터넷 접수 기간에는 광주시가 예상했던 26만가구보다 많은 28만 1700여가구가 지급 신청 서류를 냈다. 광주시는 심사를 거쳐 중위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지원금 30~50만원을 2주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경찰 ‘지구 끝까지 쫓아갈 준비’ 등 언론 적극 대응 지시 일각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설왕설래

경찰이 ‘지구 끝까지 쫓아갈 준비’, ‘모든 가담자는 곧 수갑을 차게 될 것’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담은 용어를 선정해 언론 인터뷰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내용의 정확한 전달로 국민의 신뢰감을 높이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전남청을 비롯, 전국 18개 경찰청에 ‘언론 인터뷰 시 경찰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등 강조 당부’라는 제목의 업무지시를 내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해당 업무지시는 “언론 인터뷰 시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인식·공감·강조될 수 있도록

용어 선정 등 언론 응대에 적극성을 기해달라”는 것으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준비”, “경찰의 수사 기법도 낱말이 발전” 등의 예시가 포함됐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는 의와 관련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일선 경찰청 사이에서는 그런 표현까지 일일이 제시하면서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일선 경찰청 사이에서는 “두루뭉술한 대답보다 피의사실 공표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정확한 언론 대응 지침을 전달, 혼선을 줄이는 게 신뢰를 보다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두환 27일 재판 때 광주 온다 어제 공판준비기일서 소환장 송달키로

5·18 40주년 앞두고 관심 집중

전두환(89)씨가 다시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서 선지 1년 만으로, 5·18 40주년을 앞두고 광주에 온다는 점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형사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집중 심리를 위해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 전씨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판사 결정에 따라 공판 절차 경감이 필요하게 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허가는 7일자로 취소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린다.

현행 형사소송법(277조 3호)은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신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주거, 직업을 물어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을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고 이 경우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재판장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는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증거조사를 갱신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향후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존에 제출한 증거와 관련,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와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 등으로 진행됐다.

재판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승 교수와 전일빌딩 탄환감정 보고서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변호인 측의 조인 조영대 신부는 이날 재판에 앞서 “전임 재판장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법복을 벗으면서 재판도 미뤄졌다”며 “전씨는 팔프를 치고 호화 식사를 하면서도 재판에 안 나오려 했다.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전씨가 법정에서 공의롭게 재판을 받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술 냄새” 판관에 바둑 두다 주먹질

○...70대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던 50대 남성에 ‘술 냄새가 난다’며 핀잔을 줬다가 되레 주먹으로 얻어 맞자 경찰에 신고.

○...6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A(79)씨는 지난 4일 밤 9시에 광주 서구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B(58)씨에게 다가가 “술 냄새가 난다”며 창피를 줬는데, B씨가 두고있던 바둑돌을 내 던지며 “너는 술을 안마시냐”고 소리를 지르며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기원을 찾아와 바둑을 두는 손님들에게 혼수를 두고 트집을 잡았는데, 이를 당한 B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분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